

# 광주 '학교자치 조례' 전국 첫 제정

### 주민 청구 발의 조례안 시의회 진통 끝 처리

### 학생회·교사회 등 구성... '교장권'과 갈등 우려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처음 주민청구로 발의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조례안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의결보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표결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주민 1만 7981명의 청구로 발의된 학교자치조례는 7개월여만에 제정됐다.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사·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과 참여와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4개의 자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학교

규칙 제·개정, 교육계획, 교육과정, 예산·결산 등 학교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 10곳은 구성된 '학교자치조례(안)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연대는 "자치"를 명분으로 기존의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인사·예산 등에서 당사자들이 관여하면 학교운영의 혼란과 갈등을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반발했다.

2013년 징병검사가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지난 31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6만여 명으로, 올해 19살이 되는 1994년생을 포함해 그전에 태어난 사람도 연기 사유가 해소됐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경우 올 징병검사 대상자 2만4700여명에 대해 1일부터 오전·오후로 나눠 오는 9월 4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날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자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오늘부터 징병검사 희망 날짜 선택하세요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2분 해질 18시 01분 달돋이 23시 13분 달짐 09시 58분

**우산 준비하세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다.

광주	흐리고 비	11/13°C
목포	흐리고 비	10/13°C
여수	흐리고 비	11/13°C
나주	흐리고 비	11/14°C
완도	흐리고 비	11/13°C
구례	흐리고 비	9/12°C
강진	흐리고 비	10/13°C
해남	흐리고 비	12/14°C
장흥	흐리고 비	10/13°C
순천	흐리고 비	9/12°C
영광	흐리고 비	11/13°C
진도	흐리고 비	12/14°C
전주	흐리고 비	10/13°C
군산	흐리고 비	8/11°C
남원	흐리고 비	9/12°C
옥산도	흐리고 비	10/12°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1.5~2.5m	관심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목포 05:17	10:2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1.5~2.5m	17:35	22:5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2.0~3.0m	여수 12:16	05:57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서	2.0~4.0m	2:--	18:16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6	-2/6	4/7	0/5	-1/5	-5/0



**설 대목 앞둔 제수용 과일** 설을 앞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품암동 서부농산물 시장 청과물동에서 아침부터 도매인들이 품질 좋은 과일을 열심히 고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영광원전 2호기 '예방정비' 발전 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1일 영광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2011년 9월 30일부터 491일간 안전운전 후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1일 발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광원전 2호기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검과 전원 없이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수소재결합기 설치, 저압터빈 교체 등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오는 4월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 호남권 택시 오늘 한시적 운행중단

### 정부 '택시법' 거부 반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광주·전남 1만여대 참여 시·도민 불편 가중 예상

호남지역 택시업계가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반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 중단에 돌입하기로 해 시·도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등 택시업계 관련 6개 단체는 오후 1시30분 광주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광주(호남권)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택시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상합동총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회 여·야간 합의에 의해 압도적 표 차이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교통법마저도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택시업계 종사자 전원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는 대중교통법의 신속

한 재의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사실왜곡 및 택시업계 분열 유도 행위를 강력히 규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 운행중인 택시 1만여대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운행 중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심한 불편이 예상된다. 호남권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광주 8000여대를 비롯해 3만여대에 이른다.

광주와 전남도 등은 택시 운행중단으로 시·도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한편 버스 증회 운행, 공공기관 보유 차량 투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 법원, 군 공항 소음 '85데시벨 이상' 보상 판결에 "형평성 어긋난다" 주민 반발

도심에 속하는 광주(군) 공항 소음피해를 놓고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한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1일 광주 제1전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요구 결심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형평성도 없고 판결 기준의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내린 '80데시벨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1만 3900명에게 216

억 원을 피해보상 하라'는 판결내용을 뒤집어 '85데시벨 이상' 지역주민 9673명에게 200억 원을 피해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법원과 국가가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보상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 차별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도시인) 대구와 수원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그대로"라며 "법원은 강릉, 청주, 예천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80데시벨 이상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 경미한 사안·당사자간 화해땀 '학교폭력대책위' 안 열어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일어났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 화해가 이뤄졌다면 새학기부터는 굳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학폭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 지문·사진 등록 경찰청, 전국 확대 시행

경찰청은 어린이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활용하는 사전등록제를 지난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를 지난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로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결과 실종 아동 찾기에 효과가 있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시행에서 사전 등록된 사람은 70만명에 달했다.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